

김득신의 한시에 나타난 귀거래의식과 취묵당

성범중(울산대학교 교수)

1. 머리말

金得臣(1604~1684, 字 子公, 號 柏谷·龜石山人)은 조선후기에 妙悟論을 신봉했던 시인, 당시풍 한시의 제작자, 시화집 『중남총지』의 작가로서 평가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순탄하지 못하여, 인조 20년(1642) 39세 때 식년시에서 초시 3등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현종 3년(1662) 59세 때 증광시 문과에 병과로 합격한 사실을 볼 때, 그는 과거운이 매우 박약하였다. 또 그는 천성적으로 매우 노둔했다고 일컬어지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글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다고 하는 <古文三十六首讀數記>의 기록에 근거해서 그를 노력형 인간승리의 주인공으로 주목하기도 하였다.¹⁾

그는 목천의 柏田에서 살았으므로 호를 백곡이라 하였는데, 늘그막에는 괴강 가에 정자를 지어 醉默堂이라 하고 서실을 億萬齋라고 하였으며, 서책에 찍은 도서로 四世文科 또는 柏谷溪翁이라는 말을 썼다고 한다.²⁾ 여기에서 ‘四世文科’라는 말은 曾祖父 金忠甲(1546년 문과)에서, 生祖父 金時晦(1567년 문과; 養祖父인 金時敏은 무과), 부친 金綴(1597년 문과), 그리고 본인(1662년 문과)에 이르기까지 4대가 모두 문과 급제자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인데, 그는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생애를 간단히 정리하면, 60세까지는 과거에 응시하라는 선친의 유언에 따라 그는 59세에 문과에 급제하기까지 오로지 급제의 일념 속에서 出仕를 지향하던 수십 년의 기간과, 일단 급제하여 환로생활에 들어서게 되자 도리어 향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삶에 대한 자성적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시기로 대별된다. 과거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절에 들어가 공부한 기간이 자그마치 30년에 이르는 만큼, 노년기 이전 백곡의 삶은 대부분을 시험준비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발표에서는 백곡이 이처럼 어렵게 급제한 문과이지만 급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향리로의 퇴거를 결심하고 藏修之所인 취묵당을 괴산에 건립한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 한시에 나타난 歸去來意識을 취묵당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출사 지향과 목천의 백곡장 주변

60세까지는 과거에 응시하라는 선친의 유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과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시하였던 것을 보면 백곡은 출사에 대한 매우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
- 1) 『司馬榜目』에 따르면 그의 아우 金得齡(1612년생)도 37세 때인 인조 26년(1648) 式年生員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형제가 모두 똑똑하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그런데도 그는 司禦寺正으로 있던 숙종 4년(1678)의 增廣試의 시험관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 2) “公居木川柏田 故號柏谷 晚年築亭槐江上 扁曰醉默堂 書室名以億萬齋 書冊所印圖書 則四世文科 又柏谷溪翁”(金得臣, <記聞錄>, 『柏谷集』「附錄」). *여기에서 『柏谷集』은 민족문화추진회 간행, 『韓國文集叢刊』 104에 수록된 김득신의 문집을 가리키는데, 앞으로 김득신의 시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金得臣’이라는 이름을 생략하기로 한다.

문과에 급제하기 전에 잠시 음보로 참봉을 맡았다가 그만둔 일도 있었지만 오로지 과거공부에만 매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그는 27세인 경오년(인조 8, 1630년)부터 책재작을 지고 절에 들어가서 독서하기를 10여 년, 또 호서지방에서 글을 읽기를 10년,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지 4년, 지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여 또 절에 들어가서 글을 읽고 있어서 이미 30년이 넘는다고 했으니,³⁾ 문과 급제에 대한 그의 집착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가 향리로 여기던 장소는 두 곳인데, 하나는 젊은 시절부터 계속 생활의 터전인 柏谷莊⁴⁾이 있던 목천이고, 다른 한 곳은 만년에 취묵당과 초당을 짓고 살았던 괴산이었다. 백곡의 선조가 괴산에 정착하게 된 것은 1519년 기묘사화 때 고조부 김석이 괴산으로 피신하게 된 때부터인데, 그 후 증조부 김충갑이 西原에 유배되었다가 목천현 백전마을에 살던 장인 李成春의 田莊을 물려받아 그곳에 정착하게 되니 그는 목천에 거주하면서 선영이 있는 괴산을 왕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백곡의 선친 김치도 1601년부터 4년 동안 선영의 일 때문에 괴산의 方下峴에 머물렀다고 한다.⁵⁾

백곡은 과거시험 준비에 열중하던 기간에는 목천의 백곡마을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 『백곡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천과 관련된 기록 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득신은 1630년 절에서 공부하면서 眞一上人과 方外交를 맺음, 1737년 봄에 영남에서 木州의 백곡으로 왔더니 그 중이 찾아옴.⁶⁾

朴長遠(1612~1671)이 1643년에 安陰縣監으로 나갈 때 김득신의 목천 시냇가의 집에서 하룻밤 숙박함.⁷⁾

김득신이 금강산을 여행 할 때 쓴 시 <題金化縣樓>(『백곡집』 책4, 「七律」): “招帳吾身行役苦 幾時垂釣木州溪”.

김득신이 과거시험에 떨어지고 난 뒤에 쓴 시 <公山途中>(『백곡집』 책4, 「七律」): “羸馬不前頻蹶足 黃昏始踏木州程”.

김득신이 늘 가고싶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설정된 시 <次韻>(『백곡집』 책4, 「七律」): “木岳家書寄我遲 茲辰歸計入支頤”.

목천의 백전마을은 그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이었을 뿐 아니라 마을에서 가까운 개울가에는 伏龜亭이라는 정자도 있었다. 이 정자는 시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백곡이 이곳 향리를 그리워할 때 먼저 떠오르는 풍류의 현장이기도 했다.⁸⁾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龜亭聞笛>과 <龜亭>은 바로 이 정자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3) “佛家有三生說 前生今生後生也 余以今生事言之 庚午歲 擔書笈往蘿刹 諷讀至十餘祀 而爾日月炊飯以供之 功勞爲多 其後往湖西闕十稔 復歸落社已四載 乃者飲墨困不得志 又抵爾所 吃爾炊飯如住蘿刹時 而今屈指已三十餘年”(〈贈惠正上人序〉, 『백곡집』 책5, 「序」).

4) 柏谷莊은 옛날에는 木川縣에 속한 柏田마을에 있었으나, 지금은 행정구역상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로 바뀌었다.

5) “昔辛丑歲 先君入槐州方下峴 留四年爲丘墓矣”(〈醉默堂記〉, 『백곡집』 책5, 「記」). *方下峴은 나중에 柏谷이 醉默堂을 세우는 마을이다.

6) <贈眞一上人詩序>(『백곡집』 책5, 「序」).

7) 朴長遠, <花縣錄序>(『久堂集』 권2, 「詩」).

8) <伏龜亭重創記>(『백곡집』 책5, 「記」)와 <伏龜亭重創上梁文>(『백곡집』 책7, 「儷文」)에 따르면, 1636년 불에 탄 것을 태수 李喜年이 鄉老 許謐에게 부탁하니 허밀이 金九淵, 徐鍊, 柳仁光 등과 함께 힘을 합쳐 1654년 겨울에 시작하여 1655년(孝宗 6) 3월에 중건한 것이다. 원래는 古進士 尹笛의 重創記가 있었다.

斷橋平楚夕陽低 평야의 끊어진 다리에 저녁햇살은 나직한데
 政是前山宿鳥棲 참으로 앞산에 새가 깃들 무렵이네.
 隔水何人三弄笛 물 건너편에서 누가 몇 가락 피리를 부는가?
 梅花落盡故城西 옛 성 서쪽에는 매화가 다 떨어지네.
 <북구정에서 피리소리를 듣다(龜亭聞笛)>(『백곡집』 책2, 「七言絕句」)

唐詩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⁹⁾ 이 시는 해질 무렵의 들판의 경치와 등지를 찾아 갈 준비를 하러 날아가는 새의 모습으로 시각적 심상을 보여주고,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소리로 청각적 심상을 자극한 뒤, 다시 그 소리에 감응하여 떨어지는 매화꽃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봄날저녁 들판의 정취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목천의 백곡은 이처럼 매우 아름다운 산수 속에 위치한 마을로 그에게 인식되었던 곳이다.

3. 귀거래의식과 괴산의 취묵당 주변

1) 귀거래의지와 취묵당·초당의 건립

백곡은 어렵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괴산의 선산 가까운 곳, 즉 成佛山을 뒤로 한 개향산 자락에 취묵당을 지어 시와 술로 스스로 즐기며 명성과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늘그막을 보낼 계획으로 삼았다.¹⁰⁾ 얼마 후 그는 또 취묵당 주변에 초당을 건립하여 주된 거소로 삼게 되니, 괴강 근처의 취묵당과 초당은 꿈속에서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곳에만 가면 세속과의 갈등이 해소되어 안정을 찾게 되는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 취묵당의 건립과 의미

백곡이 괴산으로 退隱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특이하다. 그는 임인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成均學諭를 거쳐 典籍을 승진되어 공관에서 숙직하고 난 뒤에, “어제 내가 바람을 맞아 차가움이 뺏속까지 스미더니 숙직하는 곳에 도달하고 나니 불처럼 따뜻하여 땀이 나려고 하였는데, 이는 조물주의 일이다. 사람이 조물주의 권능을 제멋대로 한 지 오래 되어 상서롭지 못하니, 나는 향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였는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죽히 세상을 경계할 만하다고 하였다. 마침내 그는 괴산으로 돌아가서 개향산의 선영 근처에 집을 짓고 ‘취묵’이라는 편액을 달고, 시와 술로 즐기면서 벼슬에 임명해도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¹¹⁾ 백곡의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천리를 무시하고 너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함을 빗대어 장차 관료들 사이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환갑이 다 되도록 과거공부에 매달렸던 그의 이력으로 보면 그가 귀거래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은 매우 특이한 행동이

9) 洪萬宗은 『小華詩評』 卷下에서 이 시를 “極遍唐家”라고 평가하였다.

10) “未幾下鄉 王考與世抹糲 無意於仕宦 不欲與人浮沈也 釋褐之初 結舍於槐壤先隴之側 名其堂曰 醉默 詩酒自娛 遺外聲利 以爲終老之計”(金可遠, <行狀草>, 『柏谷集』 「附錄」).

11) “壬寅登文科 由成均學諭 陞典籍 既直公館出 語人曰 昨吾冒風 寒冷透骨 既直廬 燠如火欲汗 此造化也 人而久擅造化權不祥 我將歸矣 識者謂 足以警世云 遂歸槐壤 築舍于開香山先塋側 扁曰 醉默 詩酒自娛 除拜不就(李玄錫,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安豐君金公墓碣銘 并序>, 『백곡집』 「附錄」).

라 하겠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평탄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로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먼저 선영이 있고 선친이 살던 집이 남아 있는 피산에 취묵당을 세우는데, 취묵당의 건립과 관련된 몇 가지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㉔김득신의 <취묵당기>: 내가 (선친이 50년 전에 4년 동안 머물렀던) 거처에 가고 싶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평소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중략)…… 그렇다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당의 이름인데, 무슨 이름을 걸 것인가? 눈에 모이는 것으로 이름을 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무릇 세상사람들은 취하여도 침묵하지 못하고 깨어도 침묵하지 못하여 재난의 기틀 속으로 빠짐을 경계할 줄 모르니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취해도 고요히 침묵하고 깨어도 조용히 침묵하여 입을 병마개 막듯이 꼭 봉함을 일상의 습관으로 삼으면 반드시 재난의 기틀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취하여도 침묵하지 못하고 깨어서도 침묵하지 못하여 재난이 발생한다면 어찌 두렵지 않으리요? 만약에 취중에 침묵하지 못하고 취한 다음에도 침묵하지 못한다면, 비록 몸이 들관 바깥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 말을 삼가지 않는 사람과 그 순간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구당 박중구가 임인년 여름에 네 번이나 편지를 보내어 침묵하지 못한다고 경계하였는데 나는 그를 믿는다. 당의 이름을 취묵이라고 단 것은 대개 취하더라도 침묵해야한다는 뜻을 잊지 않고자 함이다. 만약에 능히 취하여서도 침묵하고 깨어서도 침묵한다면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아 몸이 재난을 면할 수 있다면 이는 중구가 준 것이니, 어찌 그가 나를 경계한 뜻을 저버린 것이리요?¹²⁾

㉕박장원의 <취묵당서>: 내 친구가 금년 육십에 조물주의 권능을 깨달았는데, 조물주의 권능은 곧 도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장차 피강 가에 작은 집을 지어 ‘취묵’이라는 두 글자를 걸고 송악산의 아래로 그 친구를 방문하여 글을 구하여 序를 삼고자 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하기를, “깨어야 침묵하는데 하필 취함인가? 이것은 대개 도연명이 잘못이 많을까 두려워하였던 것의 끼친 뜻일 것이요. 그러나 그 집의 이름을 ‘묵’자로 한 것은 또한 번거로움을 싫어하기 때문일 텐데, 또 어찌하여 다른 사람의 글을 구하여 그것을 꾸미고자 하는가? 그렇더라도 우리 두 사람이 조만간 서로 만나 이 집 위에서 술잔을 들어 취하고, 그 개울과 산의 기이함을 보고 물고기와 새가 사람과 친함을 살펴서 하늘이 흘러 움직이는 취향을 이야기한다면 또한 어찌 끝내 침묵함을 얻는데 그치겠는가?”라고 하니, 내 친구는 한참동안 말이 없더니 좋다고 하였다.¹³⁾

㉖조석운의 <제문>: 늘그막에 등제하자 곧 명리의 장을 벗어나니 세 번 지방관의 명을 받고 두 번 언관의 책임을 맡았으나 모두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주인 없는 강산은 선생이 있는

12) “其後幾五十年 余欲踵先君居 局於未釋褐 弗得副素願 ……(중략)…… 然則不可闕者堂號也 揭號何以哉 不必以目所及揭號也 凡世之人 醉不默醒不默 不知戒陷於禍機 可不憂哉 苟能醉而嘿默 醒而默嘿 守口如瓶 習以爲常 必不觸禍機矣 不然 醉而不默 醒而不默 禍如發矣 豈不竦然 若醉裏不默 醒後不默 雖身處野外 與處城市中不慎言者同其秋矣 是故久堂朴仲久 壬寅夏 四寄書戒以不默 余信之 揭堂號爲醉默 蓋欲不忘醉默之意也 若能醉而默醒而嘿 不作妄言 身得以免禍 則是仲久之賜也 豈伊負戒余之志歟 癸卯仲春終旬 堂之主翁 題于壁以自警(<醉默堂記>, 『백곡집』 책5, 「記」).

13) “吾友今年六十而化 化則幾乎道矣 然且新構小堂於槐江之上 揭以醉默二字 已乃訪其友於松岳之下 索文以序之 余謂子醒而默 何必醉也 此蓋陶靖節恐多謬誤之遺意爾 然其揭堂號以默字 亦近乎傷煩矣 又奚以索人之文 以文之爲哉 雖然吾兩人蚤晚相遇 舉觴而醉乎斯堂之上 見其溪山之效奇 魚鳥之親人 而談昊天遊衍之趣 則亦安得終默已乎 吾友默然良久 應曰諾”(朴長遠, <醉默堂序>, 『久堂集』 권14, 「序」).

곳이요, 끝없는 풍월이 선생의 즐거움이였다. 외물의 변화함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다만 취함과 침묵[醉默]으로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고요함 속의 한적함을 마음에 잊지 않고 다만 시를 읊어 뜻을 드러내었다.¹⁴⁾

㉔에서 백곡은 괴산에 집을 하나 건립한 다음 ‘취해도 고요히 침묵하고 깨어도 조용히 침묵하여 입을 병마개 막듯이 꼭 봉함을 일상의 습관으로 삼으면 반드시 재난의 기틀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당의 이름을 ‘취묵’이라고 한 것은 취하더라도 침묵해야한다는 뜻을 잊지 않고자 함이라고 했다. ㉕에서 박장원은 백곡의 의도 외에 이 집에서 서로 만나 술을 마셔 취하고 주변 산수의 기이함을 보며 물고기와 새가 사람과 친함을 살펴서 하늘이 흘러 움직이는 취향을 이야기한다면 침묵으로 끝내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는 의도에서, 재난의 기틀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즐길 풍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㉖에서 조석운은 백곡의 사후에, 백곡이 이곳에서 강산의 주인이 되어 풍월을 끝없이 즐기면서도 외물의 변화함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다만 ‘취함과 침묵’으로 스스로를 경계하면서도 이곳에서 시를 읊었다고 함으로써, 백곡은 스스로 밝힌 바와 구당이 지적한 바를 충실히 실천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백곡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괴산에 새로 집을 지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앞에서 언급한 박장원¹⁵⁾ 이외에도 백곡의 행동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직접 그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다.

尹宣學(1610~1669)가 1664년 정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원주, 제천, 영월, 평창, 진부, 강릉, 금강산 일대, 고성, 황지, 영춘, 단양, 청풍, 괴산, 청주, 공산 등의 여행을 기록한 「巴東紀行」¹⁶⁾에 따르면, 그는 4월 25일에 단양의 도담 근처에서 백곡을 만나 함께 구담과 옥순봉, 한벽루 등을 구경하고 28일에는 김시민과 김치의 묘소가 있는 봉황대 근처 선영 아래에서 아침밥을 먹고 백사장에서 놀다가 괴산에 들러간 일이 있었다. 그때 윤선거는 “자공이 고향산의 왼쪽에 삼간의 서재를 신축하여 취묵당이라 하고 늘그막을 보낼 계획을 삼았으니, 세상사람들이 모두 자공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자공은 결코 어리석지 않네.”¹⁷⁾라고 그의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귀거래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 서울에서 만나 사귄 서원 청천 출신의 李達孝가 1663년 봄에는 괴산의 집으로 오고 그해 가을에는 취묵당으로 찾아온 일도 있으며,¹⁸⁾ 任相元(1638~1697)은 “듣자니 괴탄에 빼어난 경승을 넉넉히 갖추었다고 하니, 혹시 가을 흥취를 담은 시문을 부칠 수도 있으리.”¹⁹⁾라고 하여 절경 속의 가을 흥취를 담은 시편을 많이 지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14) “晩年登第 卽帛脫名利之場 三命分憂 再召言責 皆不就仕 無主江山是先生所 無邊風月是先生樂 外物紛譁 不興於心 而惟以 醉默自警 靜裏閑適不忘於懷 而惟以吟詠言志”(趙碩運, <祭文>, 『백곡집』 「附錄」).

15) “身世安危白髮新 萬家花柳自青春 何由直掛風帆去 上泝槐江訪故人”(朴長遠, <出江三絶>, 『久堂集』 卷7, 「松都錄」).

16) 尹宣學, <巴東紀行>(『魯西遺稿』 續集 卷3, 「雜著」) 참조.

17) “子公新築書齋三間于故山之左 扁以醉默 爲終老之計 世人皆謂子公癡 而子公不癡矣”(위와 같음).

18) “余於十餘年前在漢京時也 與達孝遊 或以酒同醉 或以詩同唱酬 不相離如鸚鵡 達孝以家本西原之菁川歸 庚子秋 余以鄉解狂清塘縣而邂逅 敝壘闕之抱 其後癸卯春 達孝訪余于槐峽之墅 同席吐欵要 其夏 余訪達孝于西原之菁川 半餉間 屹雙峯抽雙繭 其秋 達孝訪余于槐峽之醉默堂 挽而宿”(〈贈李達孝序〉, 『백곡집』 책5, 「序」).

19) “聞道槐灘饒勝具 倘因秋興寄瓊瑤”(任相元, <謝柏谷金丈得臣來訪 病不能出見>, 『恬軒集』 권2, 「詩」).

(2) 초당의 건립과 의미

김득신은 괴강이 내려다보이는 개향산 언덕에 취묵당을 건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활공간인 초당을 건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위치와 의미는 그가 쓴 글에 자세하다.

㉞김득신의 <초당서>: 성황당 서쪽 광탄의 북쪽의 方干野와 성불산이 펼쳐진 곳에는 언덕이 쓸쓸하지만 한림[선친인 김치가 홍문관 교리와 부제학을 지냄]의 옛집이 있고, 남은 터가 황량하지만 장군[조부인 김시민]의 옛 자취를 알 수 있는데, 사람이 사는 연기는 끊어졌지만 풍월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인은 泉石膏肓과 雲林疾痼가 있어서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붉은 먼지를 떠나니 초헌과 면류관에는 관심이 없고 강호에 백발을 비추며 낚시질함이 소원이다. ……(중략)…… 창은 한 줄기 물에 닿아 있어 가죽 무늬 같은 물결이 쌓이고, 문은 반 畝의 못을 둘러 처마 그림자가 벌써 잠기었네. 푸른 절벽으로 병풍을 삼고, 흰 구름으로 울타리를 삼네. 버들을 묻고 꽃을 찾으니 마땅히 물외의 뜻과 흥취를 돕고, 달을 비평하고 물을 이야기 하니 또한 한가로움 속에도 옹고 그림이 있네. 층진 벼랑의 소나무를 마주하는데 어찌 조래산²⁰⁾의 푸른빛을 부러워하며, 언덕에 기댄 매화를 보니 유령²¹⁾의 싸늘한 매화향기와 다르지 않네. 땅이 무릉도원²²⁾과 같으니 명하게 진시황 시대에 세속을 피한 사람인 듯 여기고, 뜰이 울리²³⁾와 같으니 간혹 진나라 때 전원으로 돌아온 도연명 처사처럼 여기네. 이 또한 족하거늘 누가 감히 알보리요? 흥취가 유독 술잔에 있거늘 녹색 술²⁴⁾을 기울일 만하고, 시를 지으려는 욕구가 다리 주변에서 일면 나귀를 채찍질해도 좋네.²⁵⁾

㉟김득신의 <초당상량문>: 한 칸의 집을 엮어서 수많은 골짜기의 경치를 독차지하고, 책을 보고 시를 읊는데 누가 능히 더럽히겠는가? 꽃을 찾고 버들을 물으니 스스로 회포를 풀 만하네. 지나가는 손님은 사립문에 말을 매고 이웃의 승려는 이끼 낀 길에 지팡이를 휘두르네. 비록 취묵당의 높고 트임과 거리가 있지만, 또한 개향산의 그윽하고 깊음과는 비슷하네. 구불구불한 긴 강을 굽어보니 쾌청한 빛이 닦은 거울인 듯하고, 넘실대는 작은 못에 내려가니 가는 무늬가 비단과 같네.²⁶⁾

20) 徂徠는 중국 山東省 泰安縣의 동남쪽에 있는 산으로 소나무가 유명하여 『詩經』 「魯頌」 <閟宮>에 “徂徠山之杗, 新甫之桷. 이에 끊으며 이에 헤아리며, 이에 尋(8尺)이 되고 이에 尺이 되네. 소나무로 한 서까래가 차니, 正寢이 매우 크네.(徂徠之松 新甫之柏 是斷是度 是尋是尺 松桷有烏 路寢孔碩)”라는 대목이 있다.

21) 庾嶺은 大庾嶺을 말하며 五嶺의 하나이다. 江西省 大庾縣 남쪽에 있으며 고개 위에 매화나무가 많아서 梅嶺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軒名이 雪梅軒이므로 이렇게 말하였다.

22) 桃源은 桃花源이라고도 하며 武陵山에 있는데, 秦나라 때 세상을 피해 온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 한다. 陶潛의 <桃花源記>에서 晉의 한 漁夫가 武陵桃源에 갔다가 先祖들이 秦始皇의 학정을 피하여 거기에 온 이래 바깥 사람과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전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23) 栗里는 江西省 九江縣의 서남쪽에 있던 마을로서, 陶淵明이 살던 곳이다.

24) 綠蟻는 말로 술 위에 뜨는 푸른 거품인데, 일반적으로 술을 가리킨다.

25) “叢祠之西 廣灘以北 方干野之廣豁 平楚連青 成佛岳之高危 疊石撐碧 某丘蕭瑟 有翰林之舊莊 遺址荒涼 認將軍之陳迹 人煙已絕 風月尙留 主人泉石膏肓 雲林疾痼 謝紅塵於城市 軒冕非心 映白髮於江湖 漁釣是願 ……(중략)…… 窓臨一帶之水 靴紋自堆 門壓半畝之塘 簷影已蘸 以翠壁爲屏障 以白雲爲藩籬 問柳尋花 宜助物外之志趣 批月談水 亦有閑中之是非 對松層厓 何羨徂徠之翠色 看梅欹岸 不殊庾嶺之寒香 地若桃源 悅疑秦世人之避俗 園如栗里 或訝晉處士之歸田 是亦足焉 孰敢侮也 興獨在於杯面 綠蟻可傾 詩欲就於橋邊 青驢宜策”(〈草堂序〉, 『백곡집』 책7, 「儷文」).

26) “構一間之堂宇 專萬壑之風煙 看書吟詩 孰能以浼 尋花問柳 自可遣懷 過客繫馬柴門 隣僧飛錫苔逕 雖隔醉默堂之敞豁 亦近開香山之幽深 瞰長江之逶迤 霽色磨鏡 臨小塘之激灑 細文如羅”(〈草

㉞에서 백곡은 이곳이 父祖의 자취가 있는 곳이고 이곳의 소나무는 조래산의 것과 같고 매화는 유령의 것과 같으며, 땅은 무릉도원과 같고 뜰은 도연명의 울리와 같다고 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스스로를 중국에서도 이름난 경승 또는 인물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런 속에서 좋은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면 흡족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㉞에서도 백곡은 초당을 지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온갖 호사한 경지를 나열함으로써 자기의 退臥意志가 결코 빈말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백곡은 이곳을 차지하고 난 후 이곳은 李白이 말하는 천모산²⁷⁾이나 杜甫의 시에 나오는 낭주²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기도 했다.²⁹⁾ 그리고 이 취묵당과 초당을 짓고 난 뒤의 심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開香山口結茅庵 개향산 입구에 띠집을 지으니
日夜窓間透翠嵐 밤낮으로 창 사이로 푸른 남기가 스며드네.
明月欲沈花滿地 밝은 달은 지려하고 꽃이 땅에 가득한데
枕邊孤夢落江南 베갯머리의 외로운 꿈은 강남 땅에 떨어지네.

野叟驚眠曲檻西 시골 노인은 굽은 난간 서쪽에서 잠을 놀라 깨니
夕風驅雨靄雲低 저녁바람이 비를 몰아서 검은 구름은 나직하네.
寒聲日夜無時歇 밤낮으로 차가운 소리 그칠 때가 없으니
百尺樓前峽水啼 백척 누각 앞에서 골짜기 물이 우는 소리라네.

(〈붓을 달려 짓다(走筆)〉: 『백곡집』 책2, 「七言絕句」)

앞의 시는 초당에 대한 작품인데, 개향산 입구에 위치한 초당인 만큼 이곳에는 밤낮으로 산의 푸른 기운이 스며들고, 지는 달에 낙화가 땅에 가득한 시절에는 꿈도 강남지방을 찾아 간다고 했다. ‘강남을 꿈꾼다’는 뜻의 〈夢江南〉은 중국의 詞牌로서 〈憶江南〉, 〈江南好〉 등으로 불리는데, 당나라의 시인 白居易가 강남지역 경색의 아름다움, 유람의 흥취, 인물의 정을 노래하여 산천의 아름다운 풍광과 작자의 무한한 애정을 표현한 뒤부터 매우 아름다운 풍경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곳이다. 이 초당에서 잠을 자면 꿈속에 강남을 찾는다고 했다.

뒤의 시는 취묵당에 대한 작품인데, 난간 서쪽에서 자다가 잠을 깨고 보면 저녁바람에 물려오는 먹구름이 나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곳에 있으면 밤낮으로 들려오는 물소리가 귀를 시끄럽게 하는데, 이것은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괴강의 물 울음소리 때문이라고 했다. 괴강을 굽어보는 취묵당의 위치에 따라 떠오르는 시상을 시각적인 심상이 아니라 청각적인 심상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4. 취묵당과 관련된 김득신의 한시

堂上樑文>, 『백곡집』 책7, 「儷文」).

27) 天姥山은 浙江省에 있는 산으로, 李白의 시 <夢遊天姥吟 留別>에 나오는데, 이곳에 오르면 天姥歌謠之響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28) 閩州는 杜甫의 시 <閩山歌>에 나오는 고을이름이다.

29) “翰林句裏誇天姥 工部詩中說閩州 我亦獨專槐峽勝 澄江翠壁繞高樓”(〈次韻〉, 『백곡집』 책2, 「七言絕句」).

백곡의 한시에서 취묵당과 초당 주변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開香山, 香山, 槐江, 槐壤, 槐峽, 槐江峽, 醉默堂 등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가 귀거래의식을 가지고 낙향한 괴산 지역을 가리킨다. 백곡은 개향산 아래의 隱棲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담긴 몇 구절을 보자.

개향산 아래 흰 구름 모퉁이에, 부서진 집이 쓸쓸한데 손님은 오지 않네.
 (開香山下白雲隈 破屋蕭條客不來: <次韻>, 『백곡집』 책2, 「七言絕句」)
 누가 외로운 발자취 의지할 곳 없다 하는가? 개향산 아래 사립문이 있네.
 (誰道孤蹤失所依 開香山下有柴扉: <寄延豐太守郭世翼>, 『백곡집』 책2, 「七言絕句」)
 개향산 입구에 그윽한 보금자리가 있는데, 강물 서쪽에 풀 지붕에 사립문이네.
 (開香山口有幽棲 葺屋柴門江水西: <偶吟>, 『백곡집』 책2, 「七言絕句」)

이 예들은 취묵당과 초당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개 개향산 자락 또는 입구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괴강에 머문 지 4년이 넘는데, 철에 따른 경물로 시를 지으니 시주머니가 넉넉하네.
 (槐江泥滯四年強 時物供詩富錦囊: <偶題>, 『백곡집』 책2, 「七言絕句」)
 명성을 다투고 이익을 탐함은 내 일이 아니니, 괴강에 돌아가 모래밭에 앉아 낚시질하리.
 (爭名貪利非吾事 歸去槐江坐釣沙: <宿仲久草堂偶吟>, 『백곡집』 책4, 「七律」)
 괴협에 봄기운이 돌아 홀로 돌아오니, 시골 흥취가 느긋하여 막을 수 없네.
 (春生槐峽獨歸來 野興悠悠不可裁: <題村壁>, 『백곡집』 책4, 「七律」)
 꿈속의 녀이 또한 개향산의 빼어남을 알아, 울긋불긋한 벼랑을 밤마다 올라가네.
 (夢魂亦識香山勝 翠壁丹厓夜夜登: <題旅窓>, 『백곡집』 책2, 「七言絕句」)

이 예들은 백곡의 향리인 괴산이 가지는 효용성에 대한 언급인데, 이 중에는 이곳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당위성을 담은 것³⁰ 외에도 철따라 다양하게 시의 소재를 제공하는 곳, 명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곳, 시골 흥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어디에 비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빼어난 승경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백곡이 처음부터 이곳을 마음의 안주처로 온당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취묵당을 지어 은거를 결심하게 된 뒤에도 출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였음이 그의 시편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 몸이 어찌하면 秦城으로 갈 수 있을까? 북쪽으로 흘러가는 저 긴 강을 부러워하네.
 (此身安得秦城去 羨彼長江向北流: <走筆醉默堂>, 『백곡집』 책2, 「七言絕句」)
 육신은 일월에 괴협에 머무는데, 꿈속의 녀은 삼경에 한양에 이르네.
 (形骸一月留槐峽 魂夢三更到漢陽: <次韻>, 『백곡집』 책4, 「七律」)
 이 늙은이가 떠돌을 멈추니 도성과 멀어지고, 북궐에 글 올려 청운에 오를 수 없네.
 (此翁流滯阻京關 北闕青雲不可攀: <登醉默堂>, 『백곡집』 책4, 「七律」)
 몸은 괴강의 골짜기에 있는데, 녀은 洛水의 다리로 돌아가네.

30) “我亦九秋槐峽去 白鷗紅蓼廣灘湄”(〈送禮判久堂于長湍 其時余爲正郎〉, 『백곡집』 책2, 「七言絕句」), “此身政似粘鷗鳥 何日槐江可聶魚”(〈次朴生韻〉, 같은 곳), “明發定尋槐峽去 長蓑圓笠釣江湄”(〈偶吟〉, 같은 곳).

(身在槐江峽 魂歸洛水橋: <憶久堂>, 『백곡집』 책1, 「五言絕句」)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대개 자신은 한양으로 못 가는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괴강을 부러워하거나, 낮은 꿈속에 한양을 찾아간다든가, 대궐에 상소문을 올려 청운의 꿈을 실현할 길이 없음을 탄식하는 등 벼슬길이 차단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구절은 몸이 시골에 있다 보니 친한 친구를 만날 길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들과 차이가 나지만, 벼슬자리와 친구가 있는 한양과는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가 점차 멀어짐에서 유래하는 심리적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차츰 전원생활에 적응하며 안정된 삶의 자세를 회복하게 된다.

長夜何能慰客愁 긴 밤에 어찌하면 객수를 위로할 수 있는가?
 只看孤燭照狀頭 다만 머리를 감춘 외로운 촛불이 빛남을 보네.
 此身淹泊歸期阻 이 몸이 지체되어 돌아갈 날이 머니
 夢入槐江化白鷗 꿈속에 괴강에 돌아가서 흰 갈매기로 화하네.
 (<여관의 창에서 짓다(題旅窓)>: 『백곡집』 책2, 「七言絕句」)

이 시는 나그네길에 괴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체되니 낮은 꿈속에 먼저 돌아가서 괴강의 갈매로 화한다고 함으로써, 시인 자신이 괴강의 갈매기와 일체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時序今當野菊香 이제 들국화가 향기로운 때를 맞아
 歸來鄉國興偏長 고향으로 돌아오니 흥취가 매우 유장하네.
 湖光山色天然態 호수의 빛깔과 산의 경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何似西施滿面粧 어찌 얼굴 가득히 꾸민 西施와 같으랴?
 (<취묵당에 돌아오다(還醉默堂)>: 『백곡집』 책2, 「七言絕句」)

이 시는 들국화가 향기로운 가을철에 마음의 고향인 취묵당으로 돌아오니 흥취가 매우 유장하고, 게다가 조금도 인공적으로 꾸미지 않은 호수와 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움을 그림으로써 비로소 백곡이 처음 취묵당으로 되거하려고 할 때 내세웠던 조물주의 권능을 제멋대로 함을 경계한 그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풀린 상태임을 보여준다. 조금도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천연스런 모습의 호수의 빛깔과 산의 경치는 인공적으로 꾸민 중국 최고의 미인 서시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고 있다.

水光晴后艷 물 빛깔은 갠 뒤에 곱고
 山色雨中奇 산 경치는 빗속에 기이하네.
 鵷核誠非易 진실을 따지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만
 吾寧廢賦詩 내 어찌 시 짓기를 그만두랴?
 (<취묵당에서 우연히 읊다(醉默堂偶吟)>: 『백곡집』 책1, 「五言絕句」)

이 시는 취묵당에서 시를 지으면서 유유자적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당 앞에 있는 괴강의 물빛은 비가 그쳐야 좋고, 당 뒤의 개향산의 경치는 비가 내릴 때의 모습이 기이한데,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치를 밝히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 때문에 시 짓기를 그만둘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면서 아는 만큼 보면 그만

지 모든 것을 이치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달관의 자세를 보여준다.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分外의 명리를 욕심낼 필요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자족적 삶이 생활화되면 결국 티끌 같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재난의 기틀을 건드리게 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써,³¹⁾ 세속적 명리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김득신과 박장원은 1663년 12월부터 1664년 2월까지 함께 송도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괴산에 들러 2월 초순에는 취묵당의 팔경을 시로 읊게 되는데,³²⁾ 이것은 고려중기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李仁老(1152~1220)의 시 <宋迪八景圖>에서 瀟湘八景을 읊은 이래 전국 곳곳에서 널리 지어진 팔경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별히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백곡의 시는 오언율시이고 구당의 시는 칠언절구로 되어 있어 두 시의 형식이 다르고 취묵당 주변의 풍경을 <옹암의 꽃구경(瓮巖看花)>, <성불산의 눈구경(佛岳賞雪)>, <강어귀의 장삿배(江口商船)>, <나루터의 고기잡이 등불(渡頭漁火)>, <들판 다리의 행인(野橋行人)>, <갯가 모래밭의 놀란 기러기(浦沙驚雁)>, <우협의 아침 이내(牛峽朝嵐)>, <용추의 저녁 비(龍湫暮雨)>라는 여덟 가지로 그리고 있어서 그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5. 맺음말

백곡은 문과에 급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괴산의 개향산 자락에 취묵당을 짓고 시와 술로 스스로 즐기며 명성과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늘그막을 보낼 계획으로 삼았고, 얼마 후 또 그 근처에 초당을 건립하여 주된 거소로 삼게 된다. 그가 향리로 퇴와하게 되는 동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천리를 무시하고 너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함을 빗대어 장차 관료들 사이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었지만, 처음에는 이곳을 마음의 안주처로 온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출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고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전원생활에 적응하며 안정된 삶의 자세를 회복하게 되고, 이곳에서 꾸미지 않은 호수와 산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인공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처음 취묵당으로 퇴거하려고 할 때 내세웠던 조물주의 권능을 제멋대로 함을 경계한 그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버리는 달관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애초에 의도했던 귀거래의 목표를 심리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하겠다.

31) “欲向紅塵去 惟憂觸禍機”(〈偶題〉, 『백곡집』 책3, 「五律」).

32) 朴長遠, <槐江醉默堂八詠>(『久堂集』 卷7, 「松都錄」); 金得臣, <槐峽醉墨堂八詠>(『백곡집』 책3, 「五律」). *여기에서 김득신 시의 제목에 나오는 ‘醉墨堂’은 ‘醉默堂’의 錯誤이다.